지철 스님의 **도상圖像을 통해 본 상징과 은유**

"완벽함은 시기와 질투 불러"

공중사리탑 청동함의 비밀

낙산사에서 발견된 공중사리탑 청동함(보물 1723호)

2011년 11월에 양양 낙산사에서 발견된 공중사리탑 내의 사리장엄구가 보물 1723호로 일괄 지정됐다. 당시에 거센 해풍과 낙산사의 화재로 인해 탑신이 약간 기울어지면서 수리보존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2006년 4월 28일 기울어진 탑신을 제거하고 공중사리탑(空中舍利塔)을 보수하던 중, 탑신석 상면 중앙의 원형사리공(직경 23cm, 깊이 17cm)내에서 사리장엄구가 발견되었다.

우리나라에서 공중사리탑이란 명칭을 지닌 유일한 문화재가 '공중사리탑'이다. 그 연유는 조선 중기에 홍련암 법당에서 기도를 올리고 있는데 공중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서 자세히 들어보니 부처님의 사리 한 과를 내리니 소중히 보관하라는 말이었다. 그리고 나서 홍련암 천정 아래로 갑자기 사리 한 과가 떨어져 내리니 사람들이 모두 놀라 기이하게 여긴다. 당시의 양양부사에게 이를 알리니 그가 조정에 알려 많은 내명부

양양 낙산사 공중사리탑
찌그러진 사리함 뚜껑 '눈길'
마구니 질투 막기 위한 방편

의 비빈들이 다투어 보시를 하여 세운 탑이 공중사리탑이다.

한국 불교 석탑의 최고 권위자인 정영호 교수님에 의하면, 이 공중사리탑은 1692년이라는 정확한 건립연대가 밝혀져 비슷한 시기의 여러 탑들과 관련 석조물의 편년에 소중한 근거가 되고, 또한 매우 드문 경우의 승탑형 불사리탑의 새로운 실례라고 한다.

셋째로는 양식사적으로나 세부사항에 있어 조선시대왕릉의 장명등과 유사하여 왕실 석조물과 그 영향관계를 살필 수 있으며, 인위적인 손상없이 사리병-금합-은합-청동합의 순서로 전통적인 사리장엄구 방식이 유지되고 있는 실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실례이다.

특히 완벽한 보존상태와 사리탑, 사리비, 사리장엄구가 모두 완벽하게 보존된 희귀한 사례에 속하며, 특히 함께 발견된 비단보자기류는 한국의 직물사에 큰 획을 긋는 작품로 금실과 은실과 각종 색실로 정교하게 짜여져 있는 모습은 실로 감탄을 금치 못한다.

비단보자기는 총 11점이 나왔는데 모두 복원을 거쳐 정리해 함을 만들어 양양에 있는 구석기유적박물관 수장고에 맡겨놨는데 열어 살펴보니 그 아름답고 정교한 문양과 비단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 사리를 실제로 보니 콩알만한 크기에 하얀 상아빛의 동그란 사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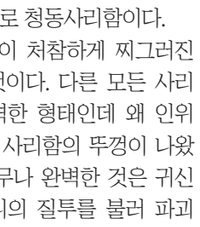
그 안에서 경면주사(鏡面朱砂)를 갈아서 쓴 발원문과 시주자들의 발문이 적힌 많은 문서들이 함께 나왔다. 금사(金絲)로 부처님의 명호를 짜넣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길상문을 새겨 넣기도 하였는데, 지금 아무리 뛰어난 직물전문가의 솜씨로도 그런 정교한 문양을 짜기는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

이 사리장엄구는 우리나라 사리장엄구 가운데서도 보기 드물게 완벽하게 잘 보존된 일괄의 사리구로 보물로 지정됐다. 그런데 여기에도 비밀이 하나 숨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청동사리함이다.

사리함의 뚜껑이 처참하게 찌그러진 형태로 발견된 것이다. 다른 모든 사리구들이 모두 완벽한 형태인데 왜 인위적으로 찌그러진 사리함의 뚜껑이 나왔을까? 그것은 너무나 완벽한 것은 귀신의 시기와 마구니의 질투를 불러 파괴될 가능성이 많아서다.

너무 완벽한 존재는 지나친 오만함과 교만으로 머지않아 많은 장애와 반발로 쉬 무너지는 경우를 보아왔다. 이 사리함의 뚜껑도 그런 이유로 해서 일부러 훼손시켰을 것으로 추정된다. 오래된 도자기나 명품도자기도 그대로의 아름다움도 좋긴 하지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깨지는 경우 그 조각을 잘 붙여 복원한 것은 너무나 아름답다. 인간은 완벽할 수가 없는 존재다. 서로 서로의 단점과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돕고 사는 사회가 바로 인간사회이다.

또 부족한 사람은 겸손해야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청동사리함의 찌그러진 뚜껑은 많은 것을 느끼게 한다.



동화사 성보박물관장

펜화로 되살아나는 신라 다보탑의 '美'

김영택 경주시 초청 특별 기획전
8~23일, 경주 예술의 전당

'인간 시각 표현법' 화법 개발
10개국 문화유산 화폭에 기록
78차 국제 펜 대회와 함께 개최

"펜화로 그린 우리 문화유산은 한국문화를 알리는 첨병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사진보다 훨씬 더 세밀하게 사물을 표현해 내는 것은 물론 주변 환경 등의 첨삭과 삭제를 통해 사물을 복원하고 부각시킨다는 점에서 펜화는 그 어떤 작업보다 매력적이라 할 수 있죠"

김영택 작가의 특별기획전이 9월 8~23일까지 경주시 예술의 전당 4층 대전시실에서 열린다. 김 씨는 20여년 동안 한국을 비롯한 10여 개국의 문화유산을 펜화로 그린 작품 100여 점을 선보인다. 특히 이번 전시는 경주시에서 주최하는 제 78차 국제펜대회와 함께 개최돼 눈길을 끈다.

김 작가는 "이번 국제 펜대회는 103개국에서 1만여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전시로 경주를 비롯한 한국의 문화유산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경주시의 제의를 받아 대회 기간 동안 대규모 전시를 함께 열게 됐다. 평생 동안 그린 펜화가 대거 전시되다 보니 나 스스로도 무척 긴장되고 기쁘다"며 소감을 전했다.

경주시의 초청을 받은 전시인 만큼 풍성한 불교 문화재 작품이 눈길을 끈다. 이번 전시에는 불국사 다보탑 복원도, 불국사 전경, 황룡사 복원도 등 경주의 문화재를 담은 작품들이 새롭게 선보인다. 이번 작품 역시 김 작가 작품의 특징인 '인간 시각 표현법'이 도입됐다.

"제 펜화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베끼는 것이 아니라 저만의 시각을 거치고 고증을 거쳐 축소 확대 변형해 재탄생한 것입니다. 사진은 일종의 원근법에 가깝지만 사람의 눈은 한 덩어리의 이미지로 풍경을 기억하죠. 이처럼 인간의 시각화된 이미지에 동양화적 기법과 감성을 불어 넣은 것이 제 작품의 특징입니다. 이는 서구 그림의 원근법이 인간의 시각과 크게 다른 점에 착안해 '인간시각 표현법'이라는 저만의 화법을 개발한데 따른 것입니다."

다보탑 복원도 역시 현재 사라져 버린 탑 난관과 일제시대 잃어버린 것으로 추정되는 사자상 복원에 공을 들였다. "현재 남아 있는 구멍 등으로 보아 다보탑에는 분명 난관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돼 작품에 반영했죠. 또한 현재 탑에 남아 있는 사자상은 하나지만 사면에 다 배치돼 있었을 것이라 학자들이 추정해 이 또한 복원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하나 남은 탑 중간 사자상의 배치가 틀렸다는 논란도 있지만 난관을 복원해 보면 탑신부를 지키는 사자상의 위치가 바로 중앙이었을 거라 확신합니다"

김영택의 '다보탑'. 난관과 사자상 등을 복원해 옛 모습을 살렸다.

김 작가는 2001년부터 중앙일보에 김영택의 펜화기행을 연재 상상력을 발휘한 역사적 고증으로 10여 개국의 다양한 문화재를 작품으로 펼쳤다. 부석사 무량수전, 경복궁 향원정, 쌍봉사, 광화문, 숭례문, 기념비전, 서대문, 서소문, 경복궁 서십자각, 영은문 등 국내 건축물은 물론 일본 나라 호류지의 금당과 5층탑, 이탈리아 로마 콜로세움과 판테옹 등 다양한 세계 건축문화재의 복원도를 그려왔다.

"산업디자이너로 일하다가 유럽에서 본 펜화를 보고 그때부터 펜 작업을 시작했죠. 평소 건축 고고학 등에 관심이 많았는데 그때 공부한 것들이 현재 작업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 작품은 단순한 사실 기록화가 아니라 복원 과정을 통해 문화재의 원형을 찾아가는 작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김씨의 작품은 인천 공항 입국장 통로에 6점이 기재되는 것은 물론 2013년도 발간 예정인 교학사의 중등미술교과서에도 실린다. 펜화장르의 개척자로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그는 이번 전시가 끝나면 내년 일본 전시를 통해 한국 펜화의 우수성을 알릴 예정이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해인사, 서산마애불… 한국인이라면 가보세요

문화부, '한국인이 가봐야 할 관광지 99선' 선정

'한국인이 꼭 가봐야할 국내 관광지 99'에 선정된 서산 마애삼존불. 99곳의 명소 중 불교 관련 명소는 9곳이 선정됐다. 속리산 법주사, 합천 해인사, 서산마애삼존불 등이 한국인이라면 꼭 가봐야 할 명소로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과 한국관광공사(사장 이참)는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국내 관광지 99'를 선정 · 발표했다. 사찰 등 불교 관련 명소로는 평창 월정사 전나무 숲길, 속리산 법주사, 서산 마애삼존불, 정읍 내장사, 고창 선운사, 경부 불국사, 경주 남산, 영주 부석사, 합천 해인사 등 9곳이 이름을 올렸다.

이번에 선정된 명소들은 대중적 인지도와 전문가들의 우수한 평가를 받은 곳으로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에서 여행지 검색 결과와 전문사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별됐다.

향후 문화체육관광부는 선정 명소들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홍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오는 10월경에는 명소들을 소개하는 홈페이지도 구축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국내 관광지 99'를 실제 방문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1박 2일, 2박 3일 등 일정별로 다양한 여행 코스를 개발할 것"이라며 "또한 국민 참여 이벤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서산마애불

보현사 '가족찬불가대회'

2012 전국 가족 찬불가 경연대회'가 10월 21일 대구 북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다. 보현사신용협동조합(이사장 지성스님)이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5개 권역 예선을 통과한 본선진출팀을 대상으로 한다.

각 참가부분 독창(성악 전공자 제외), 중창은 최소 2인에서 최대 12인까지 가능하며 참가곡은 찬불가, 찬불가요, 찬불동요에 국한한다. 예선일정은 서울 조계종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예술공연장(9월 23일), 부산 조계종부산연합회교육관(9월 15일), 대구 한국불교대학 옥불보전(10월 6일), 대전 대전동학사문화관(10월 7일), 광주 무각사(9월 22일) 등에서 이뤄진다. (053)582-0757

승광불교미술원

- 불상 : 원형조각, 전문 동불 특수불 각종불상
- 개금 : 벗겨지지 않는 순금개금 개발
- 개채 : 석채 및 유미라이트, 각종안료, 개채
- 탱화 : 다양한 방법으로 조성, 선택 (먹탱화, 홍탱화, 채색)
- 현재 : 종종사 이사. 범종불사
- 불사 상담 · 불교용품점 운영

전 화 02)491-5336 02)494-7478
공 방 031)595-6558 031)591-7478
원 장 011-226-5336 공방장 010-3179-6561

"승가건강비법 신비의 효능" [마·가·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서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열매와 약수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1달분 60봉 두 재 분량) 요청에 의해 보내드립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 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 방영
■ 2010년 10월 24일 일요일 오전 7시 20분 - MBC TV "고향이 좋다" (마가목 효능) 방영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
셋째, 중풍,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 (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

※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문의 전화번호 : 031)773-7838 참나선원 대진스님

※ 수행선원이나 강원스님께 대중공양하실 불자님 연락바랍니다. ※

· 제조원 : 구암식품 · 식품제조업 : 대구 북 제00619호
· 온라인통장(농협) : 227027-51-090791 · 예 금 주 : 남궁성균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창고,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공장, 일반 가정집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1-248-6298

이오칼라지붕공사 (구. 현대칼라지붕공사)